

# 두산 공포증 탈출 LG... 9연패 사슬 끊은 한화

### 2020 KBO리그 프로야구 세계의 관심 속 막 올라 LG, 잠실 라이벌 두산 맞아 31년만에 개막전 승리 김현수 1호 홈런 주인공... 차우찬은 6이닝 1실점 한화는 11년만에 개막전 V... 외국인 첫 완봉승도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31년 만에 '잠실 라이벌' 두산 베어스와 개막전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LG는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솔(SOL) KBO리그 개막전에서 두산을 8-2로 꺾었다.

LG가 두산을 개막전에서 만났을 때 승리한 건, MBC 청룡 시절이던 1989년 OB 베어스를 5-1로 누른 이후 무려 31년 만이다.

LG는 여전히 두산과의 개막전 맞대결 전적에서 2승 8패로 밀리지만, 2020년 첫 만남에서 두산을 꺾으며 '두산 공포증' 탈출 가능성을 키웠다.

어린이날 맞대결에서도 LG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두산을 이겼다. LG의 어린이날 두산전 상대 전적은 10승 14패가 됐다.

토종 에이스 차우찬과 주장 김현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날 LG는 3월 말에 귀국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느라,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타일러 윌

슨과 케이지 켈리 대신 토종 좌완 차우찬을 선발로 내세웠다. 선발 차우찬은 6이닝 동안 3안타만 내주고 1실점하며 '개막전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kt wiz에서 뛰었던 라울 알칸타라는 6이닝 6피안타 3실점으로 두산 이적 후 첫 등판에서 패전의 멍에를 썼다.

LG는 2회 말 2사 후 2020시즌 최고령 선수 박용택이 볼넷으로 출루해 기회를 잡았다. 박용택은 후속타자 김민성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치자, 전력으로 질주해 홈을 밟았다.

1-0으로 앞선 3회 2사 2루에서는 김현수가 알칸타라의 시속 153km짜리 직구를 공략해 왼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김현수는 2020시즌 KBO리그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두산은 0-3으로 끌려가던 4회 김재환의 우중월 솔로포로 한 점을 만회했다. LG는 3-1로 앞선 8회 5점을 뽑으며 승기를 굳혔다.

이찬웅이 좌중월 3루타를 치며 기회를 잡았고, 1사 3루에서 김현수가 우중월 2루타로 타점을 올렸다.

LG 투수진은 완벽했다.

차우찬은 김재환에게만 솔로포를 허용했을 뿐, 슬라이더와 커브를 절묘하게 섞으며 두산 타선을 요리하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도 7회 2사까지 퍼펙트 피칭을 펼친 외국인 투수 위익 서폴드의 호투를 발판 삼아 11년 만에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한화는 이날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솔(SOL) KBO리그 공식 개막전 SK 와이번스와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한화는 2010년 3월 27일 SK전부터 지난해 3월 23일 두산 베어스전까지 계속된 개막전 9연패(2014년은 우천 취소) 사슬을 끊고 오랜만에 웃었다.

서폴드의 호투가 눈부셨다. 그는 1회부터 6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허락하지 않았다.

서폴드는 7회 2사에서 첫 주자를 내보냈다. 최정에게 볼넷을 허용해 아쉽게 퍼펙트가 깨졌다.

첫 주자를 내준 서폴드는 후속 타자 제이미 로맥에게 좌전 안타를 내주며 흔들렸는데, 한동민을 내야 땅

볼로 처리하며 위기를 탈출했다.

서폴드가 호투 행진을 펼치는 사이 한화 타선은 상대 팀 에이스 닉 킹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점수를 쌓았다.

한화는 2회 선두 타자 송광민의 좌익선상 2루타로 만든 무사 2루 기회에서 김태균이 좌전 적시타를 기록해 선취점을 올렸다.

1-0으로 앞선 7회엔 송광민의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와 김태균의 볼넷, 정진호의 희생번트로 2사 2, 3루 기회를 만든 뒤 하주석이 싸늘이 중전 적시타를 터뜨려 3점 차로 도망갔다.

서폴드는 9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지며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다.

서폴드는 외국인 선수 최초 개막전 완봉승 기록도 세웠다.

타석에선 송광민이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SK 선발 킹엄은 7이닝 6피안타 4탈삼진 3실점(3자책점)으로 활약했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한편 이날 경기는 2시간 6분이 소요돼 역대 개막전 최단 시간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 ◆5일 전적

[수원] 롯데 7-2 kt  
[광주] 키움 11-2 KIA  
[대구] NC 4-0 삼성



정근우, '이걸로 마무리'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7회초 1사 1루에서 두산 오재원의 타구를 LG 정근우가 잡아 병살로 연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심잡기·불편제도 폐지·소통... K리그 '탈바꿈'

### 대한축구협회, VAR 전담 심판 7명 선정 평가관 제도 통해 심판 실력 점수로 평가

8일 개막하는 하나원큐 K리그 2020에서는 심판 운영 제도가 크게 변한다. 과거 K리그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아마추어 대회 등은 대한축구협회가 각각 담당해왔지만, 올 시즌부터는 심판 배정 업무를 축구협회로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K리그 심판 선발부터 교육, 배정, 평가까지 모든 책임을 지게 된 협회는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VAR '전담 심판' 신설=2017년 K리그에 처음 도입된 VAR은 이제 '판정의 최후 보루'라고 불릴 정도로

정착했다. 전문성을 높이면 오심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협회는 올해부터 VAR 전담 심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VAR 심판은 주심들이 돌아가며 맡아왔는데, 올 초에 VAR만 전담으로 보는 심판 7명을 새로 선정했다.

작년 K리그에서 VAR 판독 오심은 총 16회 발생했다. 이를 50% 이상으로 줄이는 게 올 시즌 협회의 목표다.

▶1주일 전 심판배정·거점속소제 폐지=지나해까지 경기별 심판진은 경기 하루, 이를 전야 심판들에게 통보

했다. 주심으로 투입될지, 대기심이 될지도 경기 당일해야 알 수 있었다.

공정성을 꾀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심판들 입장에서는 컨디션 조절이나 준비에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주말 경기는 교통편 예약도 쉽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잦았다.

협회는 감추는 것보다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올 시즌부터 경기 최소 1주 전에 예비 배정을 해서 심판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4일 전에 이 명단은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주말 경기라면 늦어도 수요일에는 심판진이 발표된다.

경기가 열리는 도시에서 묵지 않고, 인근 '거점 도시'의 지정 숙소에서 하

루 숙박한 뒤 경기 당일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거점 숙소제'도 폐지된다.

▶경기 끝나면 보고서 작성=K리그에는 심판 평가관 제도가 있어서 이들이 매 경기 심판들의 실력을 점수로 평가한다.

올 시즌부터는 K리그 심판들도 경기 후 48시간 이내에 자신의 경기력을 스스로 분석한 '자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연말에 심판들의 승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판정 논란에 대한 브리핑 활성화=협회는 판정 논란이 발생하면 심판위원회가 직접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수시로 심판 감사나 심판들이 영상을 통해 팬들이 궁금해하는 규칙에 관해 설명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심판-팬 토크 콘서트'와 함께, 심판과 구단 관계자의 정기적인 만남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어린이날' 특별함 더해진 한국프로야구

### 대형 투명 워킹볼·마스크 어린이·학생 등 안전시구

코로나19는 여전히 야구장 안팎을 위협한다. 5일 개막한 한국프로야구도 '안전'과 '방역'을 강조하며 플레이볼을 외쳤다. 시구 장면도 특별했다.

kt wiz는 5일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2020 신한은행 솔(SOL) KBO리그가 개막전에 어린이회원 이라온 군(9·평동초교 2학년)을 시구자로 초청했다.

이 군의 입장은 특별했다. 그는 야구공 형태의 대형 투명 워킹볼 안에 들어가 투수 마운드에서 홈플레이트까지 걸어왔다. 이 군은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시구를 마쳤다.



이라온군의 시구. 연합뉴스

'코로나19 시대', 어린이날에 개막한 2020년 한국프로야구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SK는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치른 한화 이글스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명절 용돈을 모아 마스크 100개 등을 기부한 노준표 군을 시구자로 초청했다.

연합뉴스

## 30년 쓰는 태양광, 10년 무상보증으로 안심 !!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 제주에너지공사 2020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접수 개시

(3kW 기준 : 보조금 251만4천원 / 자부담 249만원)

10년

8개 참여기업 "하자보증기간" 비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도내 최장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